

지역 소식통

부안 변산해수욕장 어린이 놀이시설 6월 조기 운영

(사)변산지역발전협의회는 부안군과 협의를 통해 변산해수욕장 어린이 놀이(수경)시설을 6월 조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어린이 놀이(수경)시설 운영은 7월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8월 폐장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올해 운영은 6월 둘째주부터 매주 금·토·일 오전 10시 ~ 11시30분, 오후 1시 ~ 3시, 오후 3시30분 ~ 5시까지 조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조기운영의 효과로는 변산해수욕장의 인기시설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기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인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해수욕장과 다른 차별화를 통한 변산해수욕장 홍보,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준공된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정읍천 노후 운동기구 10개 철거, 12개 설치

정읍시가 도심 속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변 야외운동기구를 새롭게 설치했다. 시는 노후화된 10개의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새롭게 1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변 일대 야외운동기구가 오래되어 부식이나 고장이 잦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있었다. 이에 따라 일대 시내 8개 동 지역(수성, 정명, 내장상동, 시기, 초산, 연지, 농소, 상교)을 대상으로 야외운동기구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운동기구를 선정했다. 조사에서는 차례대로 '뒹작게(크게)이동하기'와 '손목 움직이기 + 손가락 계단 오르기', '그림맞추기 게임 + 미로 찾기 게임', '(나선/곡선) 경로 따라 움직이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정읍천변과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은 초산동과 시기동 구역에 모두 12개를 설치했다. 시는 산책과 운동 등을 위해 많은 시민이 정읍천을 찾고 있는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공건축물 '랜드마크' 추진

고창군, 신규 건축물 황윤석 도서관·군립미술관·보훈회관·의회청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건립중인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 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건축물 조성시 심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국내외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고창 황윤석 도서관(고창읍 월곡리 873번지 일원)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목구조 기둥 설치 공사가 진행돼 밖에서도 목조형 건물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설계를 맡은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교수)는 큰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느낌을 내기 위해 도서관을 목구조로 설계했다.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100m에 가까운 기다란 박공지붕에 친환경 태양광 전지를 얹었다.

고창군립미술관(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하반기 착공과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개방형 통로의 외관은 유리로 처리됐다. 소풍볼의 쇼윈도를 보듯,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도 지나가면서 유리창을 통해 지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미술관'이 만들어진다. 고창군 통합보훈회관(고창읍 교촌리 233-5)은 연면적 약 850㎡(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보훈가족의 매개체가 되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원활한 접근과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한 공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고창군의회 청사(군청 맞은편)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1층은 민원라운지, 2층과 3층에는 회의공간, 4층과 5층은 의원실 및 사무공간을 배치한다. 또한, 기존부지가 공영주차장임을 감안해 1층 일부에 필로티를 계획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공간 사이사이 미니정원을 꾸며 군민이 의회를 방문할 때 딱딱한 사무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다가감으로써 군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짓거나 조성계획인 공공건축물의 심미성을 최대한 살려 랜드마크화하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맑은 물은 건강한 삶의 기본"

정읍시, 조류 경보제 지점 추가 지정·목적호 수시 모니터링 등

정읍시가 시민의 삶의 질의 기본인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나섰다. 시는 상수원인 옥정호 녹조 발생에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녹조가 조기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의 녹조는 물의 색깔뿐만 아니라 냄새 물질과 독소 물질을 배출하여 물의 심미적 가치와 안전성을 떨어뜨려 사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옥정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별도로 배치해 녹조 발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의 수면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해서 녹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 옥정호 광역상수원(19명)과 도원천(2명) 지킴이를 배치해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계도와 감시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상수원 지역 주변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8월 주 취수구를 기존 운암 취수구에서 수질이 안정적인 칠보발전 취수구로 변경했다. 비교적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처리를 거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부 권의를 통해 조류 경보제 지점을 기존 칠보취수구 1지점 외에 옥정호 내에 위치한 칠보발전 취수구 지점을 추가, 총 2개 지점을 경보제 지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인 옥정호의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집중적인 수면 상태 관찰 등 선제적 조류 대응과 관리로 상수원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걱정 마세요"

이달 30일까지 봄철 농촌 일손돕기 집중 기간 운영

일손 하나가 아쉬운 본격적인 영농철, 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농가 일손 돕기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농번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를 봄철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농업정책과와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산업팀에서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 일손돕기 참여자와 필요 농가를 연결해주거나 관련된 상담도 진행한다. 유관기관이나 자원 봉사자, 대학생 등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고 있다. 또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샘골농협 3개소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인력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적기 적소에 인력을 투입한다



정읍시는 농번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를 봄철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는 계획이다. 지원 우선 농가는 독거 농가와 장애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시민소통실과 농업정책과, 산내면 등 시 산하 직원들은 적극적인 일손 돕기에 나서 사과 수확안내, 복숭아 봉지

싸우기 등의 농작업을 지원하고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에서 일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서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 14일까지

정읍시가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마감 기간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4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희망 농가는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면적은 1,000㎡이

상이다.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복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자칫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군조(郡鳥-비둘기) 변경 설문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군조(郡鳥)로 지정된 '비둘기'의 군 상징물 변경 여부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비둘기가 성질이 온순하고 사람과 친하게 살아가는 새로서 군민의 애정심과 온순성으로 군민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군조를 지정했다. 그러나 2009년 환경부가 인명이나 항공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비둘기를 군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군에서도 시대흐름과 행정변화에 따라 군조인 비둘기를 변경하는 것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군조 변경에 대한 군민 의견 설문을 진행한다. 이번 설문은 상징물 인지도, 군조 의미 인식, 군조의 상징물로서 의미, 군조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비롯해 대체 군조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6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군민과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창군청 홈페이지(gochang.go.kr-참여마당-설문조사)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문조사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5일부터 9월 3일까지 2025년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임대농기계 수요를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설문조사로 임대사업소(본소, 남부, 동부)와 농업소득상담소에서 일괄 진

행된다. 이번 조사는 전년 대비 3개월 앞당겨 추진되는데 이는 영농이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임대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다. 본 설문조사 결과와 농기계임대사업소의위원회를 거쳐, 농업의 생산성과 영농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목록을 확정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